

제4

(I

1. < >
- → / → 700 !경 서울→ !성부→ !제→ !대

[]

1. 정도전과 이성계
2. 한양의 모습
3. 일제 시대 서울의 모습
4. 일제 시대 서울의 일부 모습
5. 근대의 서울

⇒ !울이 시간을 따라 발전을 거듭하는데 어느 시점에서인가 그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이것을 근대라고 표현한다.

김옥균의 치도양론 관련 슬라이드

1. (), , (1885) | 미국 유학을 앞두고 찍은 사진
1) 치도규칙에 나타난 김옥균의 도시계획 사상의 형성
2) 치도규칙의 의의

2. < >
치도규칙: 서울시 정비 계획

(1) 치도규칙의 탄생 배경

- 1876 : 일본으로 수신사 파견

제1 : 김기수

제2 : 김홍집

제3 : (1882), . 이때 박영효는 한성부
치도 사업을 위한 치도 규칙을 만들 것을 김옥균에게 제안한다.

(2) 김옥균의 치도약론 및 치도약칙

- :
- :

⇒ 이 두 가지가 김옥균의 치도규칙을 형성함

(3) 치도규칙의 실패

- → → 1883 1 !에 박영효가 한성부 부
위원 임명→ !옥균이 일본에서 작성한 치도 규칙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치도 사업 시작
⇒ : 개화를 반대했던 민씨 일파에 의해 박영효가 쫓겨나면서 처음으로
실시되었던 치도 사업이 3 .

cf. 박영효가 광주로 좌천되었을 때 왕에게 상소하는 글

- 개화를 반대했던 민씨 일파들이 왕에게 치도 사업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

→ “신이 한성부의 벼슬에 있을 때 생각하기를 길을 닦는 한 가지 일은 본래 나라의 정사에서 중대한 사업은 아니고 바로 해당 관리의 직분이라고 보았습니다. 길을 침범한 일체 립 () , 길가에 지은 집들은 설사 가깝게 들어 앉았더라도 헐지 않은 것은 백성들이 살던 곳을 옮겨가기 싫어한다는 것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심지어 이고 지고 흩어져서 수도 안이 텅 비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달가워하지 않는 자들이만 들어 낸 요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. 큰 개혁을 할 때 비방과 원망을 초래하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. ()”

- , 『 』 9) 20 p. 344

3. 1880 !대의 도시 한성의 상황

[]

1. 김옥균의 사진

2. 김옥균의 명함

3. : , .

→ 예문

치도약론에 의하면, “일찍이 어떤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유람하고 돌아가 했다는 말을 들은 바가 있는데 그 사람은 말하기를 조선은 산천이 비록 아름다우나 민가가 희소하며 사람들이 강하고 포부가 있으나 사람과 가축의 똥, ” (한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, , p 434) .

[]

1. 청일전쟁 즈음 한성부의 상황을 그린 삽화

가가(): . < > |도 이 가
가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왕이 행차할 때에는 철폐되었다.

2. 1889 (富村

3. , 왼쪽 빈촌

4. 성벽에 붙어 지은 집들

5. 펜으로 그린 그림

4. 치도규칙의 목표

⇒ |생을 좋게 하고, , (商 행위를 활발히 하는 것

→ 치도: “ . 이것

이 길을 잘 닦는 문제가 급선무로 되는 까닭이다. 길이 잘 닦여 있으면 열 사람이 하는 일을 한 사람의 힘으로 능히 할 수 있으며 나머지 아홉 사람은 다른 기술 사업에 돌릴 수 있다. 그리하여 이전에 놀고 먹던 자들은 각자 직업을 얻어 백성들도 편리하고 나라에도 이롭

게 된다.” (, , p 435)

치도약론과 관련된 연구

⇒ } 화파와 관련된 역사학 논문, 지역 개발학 분야의 몇몇 논문들

기존 연구의 한계

- 1) , 한성부 치도 사업의 영향은 일제에 의한 경성 개조시 소멸한 까닭에 이에 대한 연구가 희소한 실정
- 2) 치도약론의 형성에 관한 연구 부족
- 3) 치도규칙과 그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한성부 치도사업의 근본적인 동인을 지나치게 도시 환경 미화라는 측면에서만 고찰()
- 4) , 근대성 혹은 자본주의적 발상 측면을 간과